

# 진보적 대중여성운동의 연속성과 변화

한국여성민우회 활동을 중심으로

김경희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 〈논문요약〉

이 글은 1987년 창립된 진보적 여성운동단체인 한국여성민우회 운동의 연속성을 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에서는 활동가들에 대한 심층 면접과 민우회 활동 참여의 경험, 민우회의 출판물과 내부자료 등을 분석했다. 이 글의 주요 논지는 운동의 연속성을 설명되어야 할 운동의 결과로 보면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사회운동의 집합적 정체성에서 찾는다. 즉 민우회 운동의 연속성을 가능케 한 집합적 정체성의 핵심은 진보성과 대중성이었으며, 그것의 구체적인 실천은 생활정치임을 주장한다. 민우회 운동의 생활정치는 지역여성운동의 생활정치, 공사 경계에 도전하는 생활문화 운동, 여성노동 의제의 개척과 공문화라는 세 측면에서 분석되었다.

민우회운동은 여성과 가족의 삶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의제들에서 한국사회의 가부장적 요소들과 젠더 불평등의 지형을 파악해내고, 그것의 변화를 모색했기 때문에 진보적이며 대중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주요어: 한국여성민우회, 운동의 연속성, 진보성, 대중성, 생활정치

## 1. 서론

### 1) 문제제기

1987년 9월 12일 진보적 대중여성운동을 주창하며 창립된 한국여성민우회(이하 민우회)가 올해로 24주년을 맞았다. 민우회는 1980년대의 민주화운동에 동참하면서 가부장적인 한국사회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진보적’ 여성운동으로 스스로를 규정하면서 출발했다. 민우회는 창립 당시 200명의 회원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2만여 명의 회원과 10개의 지부, 생활협동조합, 그리고 2개의 부설기구인 성폭력상담소와 미디어 운동본부를 두고 있는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전국적 여성운동 단체이다. 1987년 민주화운동의 흐름 속에서 민우회뿐 아니라 진보적인 여성단체들이 다수 만들어졌다. 당시의 진보적 여성운동은 관의 지원을 받는 여성운동 그룹들과 차별성을 부각시키면서 성폭력, 가정폭력, 환경, 보육, 평화 등을 의제로 다루는 단일 이슈 중심의 여성운동단체들과 이들의 연합조직인 한국여성단체연합<sup>1)</sup>을 중심으로 한 세력을 형성했다.

민우회는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소속 단체였지만, 그 규모나 다루는 의제를 보면 단일한 여성문제를 다루는 여성단체들과 달리 가족, 섹슈얼리티, 예산, 일상문화, 미디어, 생활협동조합운동, 환경 등 매우 다양한 쟁점들을 다루면서, 지역에 대중여성운동 조직을 두고 있다. 돌이켜 보면 우리 사회의 주요한 여성문제의 공론화와 대안은 민우회 운동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많다. 이미 우리사회에서 고유명사처럼 회자되는 용모제한 철폐, 일상생활의 여성차별 드러내기, 한부모, 명절문화 개선, 지역여성들이 주축이 된 생협운동, 리브호텔 반대 운동 등 생활 속의 많은 실천들이 민우회의 주요 활동이다. 대부분의 한국의 진보적 사회운동이 대중성을 지향하지만,

---

1) 당시에 24개의 진보적 여성운동단체들이 가입되어 있었다.

실제로는 중앙 중심의 연대활동에 초점을 두어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라는 비판에 노출되어 있는 것에 비해, 민우회 운동은 “한국의 민주주의 운동과 사회진보운동이 간과한 지역적 수준에서의 대중적 실천에 일찍부터 주목하고 그것을 실현해왔다는 점에서 독보적”이다(조희연 2008, 2).

그렇다면 20여 년 동안 민우회가 진보적 대중 여성운동으로서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과 요인은 무엇인가? 과연 민우회 운동에서 진보성과 대중성은 무엇을 의미하며, 그것은 어떻게 실천되었는가? 이 글은 이런 연구질문에서 출발하여 창립 이후 20여 년에 이르는 민우회 운동의 연속성을 조명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20년 이상 민우회 운동의 연속성을 가능케 한 것은 진보성과 대중성을 핵심으로 하는 집합적 정체성이었으며, 이를 가능하게 한 구체적인 실천은 생활정치임을 보일 것이다.

민우회 운동의 20여 년에 걸친 연속성을 조명하는 작업에 활용된 자료들은 필자가 그동안 수행했던 활동가들에 대한 심층면접과 민우회 활동 참여의 경험, 함께 가는 여성(1987~2005)을 비롯한 민우회의 출판물과 내부 자료 등이다. 한국여성민우회의 20년 운동에 대해서는 2008년에 출판된 『한국여성민우회 20년 여성운동사: 여성운동 새로 쓰기』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 책은 한국여성민우회 20주년을 맞아 기획된 출판작업으로서, 한국여성민우회의 모든 조직활동과 그에 대한 평가가 수록되어 있다. 이 글은 한국여성민우회 20년 운동사를 집필하기 위한 1년여 동안의 공동작업을 반영한 것이다.

## 2) 운동의 연속성에 관한 논의: 집합적 정체성과 생활정치

운동의 연속성(continuity)이란 어떤 운동조직이 과거와 현재가 비교적 일관된 연관성을 유지하면서 존재하는 사회적 속성을 의미한다(Gongaware 2011, 42). 그러나 연속성은 역사성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변화를 동반하면서 유지된다.

기존의 사회운동연구에서 운동의 연속성은 설명되어야 할 운동의 결과라기보다는 전제처럼 여겨져서 별도의 분석이 많지 않다. 오히려 운동의 변화에 주목하여, 서구에서는 사회운동을 둘러싼 정치적 기회구조의 변화, 운동조직의 회원과 참여자의 구성, 운동의 전략 및 전술, 목표, 그리고 운동의 프레임의 시기적 변화 등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축적되었다(Jenkins 1983; McAdam 1982; Klandermans 1984; Minkoff 1993; Tarrow 1983, 1994; Katzenstein 1987; Taylor 1989; Whittier 1997). 한국에서는 민우회 뿐 아니라 1987년 이후 창립된 진보적 여성운동 조직들도 비교적 연속성을 유지해 왔다.<sup>2)</sup> 1987년 이후부터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진보적 여성운동 조직들은 전국적인 연합체 운동을 통해 주류 세력으로 자리를 잡은 특징이 있다. 이런 특징으로 인해 여성운동 연구는 주로 한국여성단체연합에 초점을 두고 전반적인 진보적 여성운동의 흐름과 시기별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운동의 변화와 한계를 진단하고 미래의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주를 이룬다(강남식 2004; 남윤인순 2004; 김영희 2002).

이 연구들은 사회운동론이나 이론적 분석틀에 근거하기보다는 여성운동 공동체의 운동에 대한 성찰적 평가의 성격이 강하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1980년대에 비주류의 변혁운동이었던 진보적 여성운동이 1990년대 이후 여성의 정치세력화와 여성의제의 법제화 과정에서 보여줬던 주도적인

---

2) 1987년 이후에 한국의 여성운동의 지형은 운동의 집락(movement clusters)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크게는 진보적 여성운동과 자유주의적 여성운동으로 나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운동의 집락들(movement clusters)이란 지속되는 운동의 비교적 차별적이고 다소 일관된 구성 요소를 의미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구미에서는 이런 요소들로 자유주의적, 급진적, 사회주의적 분파를 들 수 있다. 진보적 여성운동세력은 민우회를 포함하여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소속단체들로 이루어졌으며, 자유주의적 여성운동 세력은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소속 회원인 직능단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회원 단체들의 신생과 퇴조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 두 진영의 단체들은 모두 창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의 역사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사실 지난 20년 동안 두 진영은 대립적이라기보다는 사안에 따라 일시적 연대구조를 형성하면서 한국사회의 여성문제를 주창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왔다. 대표적으로 호주제폐지, 군가산점제폐지, 모성보호제도 개선, 할당제, 여성의 정치참여 등에서 두 진영은 연대와 공조를 통해 일정한 성과를 보여줬다.

역할과 성과를 평가하는 동시에, 운동과정과 결과에서 나타난 여성운동 내부의 차이를 확인하고 새로운 진보성의 모색을 요청하고 있다. 자원동원론을 적용한 홍미희의 연구는 진보적 여성단체의 지속성을 공식적이고 관료적인 조직구조의 유지와 형식화의 진전에서 찾고, 이것이 진보적 여성운동의 발전에 도전이 되고 있음을 분석한 바 있다(홍미희 2006). 또 한편에서는 진보적 여성운동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연구의 흐름이 형성되어 있다. 1990년대에서 2000년대에 걸쳐 진보적 여성운동이 성평등을 위한 제도 개선에 기여한 바를 인정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여성노동계층의 빈곤화와 비주류화를 묵인하면서 신자유주의통치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는 비판적인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호성희 2007).<sup>3)</sup>

이와 같이 상당한 연구와 비평들이 진보적 여성운동을 하나로 묶어 분석하거나 비판한 것에 비하면 개별 여성운동조직의 활동과 역사를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드물게 문소정의 연구는 1997년에 창립된 평화여성회의 지속성을 인지적 실천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분석한다. 이 연구는 진보적 여성운동으로 출발한 평화여성회가 여성평화문제를 한반도적 맥락과 동아시아의 글로벌 맥락에서 사유할 수 있도록 새로운 생각, 개념, 논리, 담론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인지적 실천을 통해 지속되었다고 본다(문소정 2009).

기존의 한국의 여성운동에 관한 연구들은 정치적 기회구조나 조직의 발전과정에 초점을 두면서 현재의 문제점과 미래의 과제를 제시하는 경향을 보이며, 운동의 지속성 혹은 연속성은 설명되어져야 할 연구문제라기 보다는 당연한 운동의 결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본 논문에서는 운동의 연속성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에 관심을 갖는다. 운동조직

3) 비슷한 맥락에서 조주현은 “80년대의 민주화운동의 구도에서 여성노동자가 한국여성의 정체성으로 부각되었고, 90년대에는 다시 여성일반의 정체성의 정치학이 전개되었다”고 진단하면서, 여성일반의 정체성이 기계적으로 적용되어 여성을 다시 억압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조주현 2001, 147).

의 운영 및 전략과 전술의 선택, 운동 프레임의 구성은 과거에 영향을 받아 채택 혹은 수정을 거치면서 발전한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사회운동은 과거와 비교적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착안하게 된다(Gongaware 2011, 41-42). 그리고 사회운동의 참여자나 조직은 끊임없이 운동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과제와 운동의 시대적 상황에 부응해야 하는 응전에 직면하면서 변화한다. 변화와 응전 과정에서도 조직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요소를 그 운동조직의 집합적 정체성에서 찾을 수 있다. 멜루치는 집합적 정체성은 당면한 현재에 부응하는 동시에 과거를 보존하려는 인식을 포함한다고 보았다(Melucci 1996). 많은 연구들이 집합적 정체성 그 자체가 운동의 목적이 되기도 하며, 운동의 결과로 집단의 자부심으로 발전되기도 하며, 새로 형성된 정체성은 제도적인 정치의 장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Polleta & Jasper 2001). 집합적 정체성은 특정한 시점에서 운동조직의 단결과 성원들의 몰입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이지만, 정체성의 변화는 단결과 몰입을 저해할 가능성을 모두 갖고 있다(Gongaware 2011).

지난 20년 동안 한국사회가 변화되고 여성의 삶이 변화한 것만큼 민우회의 활동도 다양하고 변화를 수반했지만, 20여 년의 운동 역사를 관통하는 진보성과 대중성이라는 다소 일관된 정체성은 운동의 연속성을 부여하는 중심 요소라 할 수 있다. 본문에서 논의하겠지만, 민우회는 창립에서부터 사회민주화와 가부장적 사회변화를 목표로 하는 진보성을 주창했고, 기존의 소수 엘리트 여성 중심의 운동을 지양하는 대중성을 견지하려고 애썼다. 20년의 운동과정에서 진보성과 대중성은 맥락에 따라 재구성되었다.

그렇다면 민우회 운동이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해 온 진보성과 대중성이라는 집합적 정체성의 형성과 실천을 가능하게 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생활정치의 실천에서 찾을 수 있다. 생활정치라는 개념은 사회운동이나 학계에서 기존의 제도정치에 대한 대안정치의 의미로 인식되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하버마스, 기든스, 올리히 벡과 같은 유럽의 지성들이

근대화의 부작용에 대한 성찰 속에서 대안적인 정치형태로 생활정치를 언급해 왔다. 그러나 그것은 추상적 수준에서 논의되었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매우 다양하면서 때로는 정치인들조차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이 개념을 전유하기도 한다(서창훈 2009, 113). 한국의 사회운동 및 정치 연구자들은 2008년 촛불시위를 통해 분출된 시민의 참여와 열망을 목격하면서 생활정치 개념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던 1990년대의 여성운동의 지방의회 진출을 위한 활동과 생협활동, 풀뿌리 운동 등 지역자치 운동의 의미들을 재조명하는 시도들이 있다(하승우 2009; 정상호 2009). 그러나 이 연구들에서 여성운동의 활동들은 피상적인 수준에서 생활정치의 사례로 열거될 뿐 그것의 사회운동적 의미를 분석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지역여성운동에 관한 연구들은 지역을 여성문제가 구체화되는 현장으로 인식하면서 생활정치를 실천한 사례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김경희 2004; 김현아 2004; 박기남·김연순 2008; 이혜숙 2008).<sup>4)</sup>

여성운동에서 생활정치라는 개념은 1960년대 제2의 페미니즘의 물결 속에서 대두된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슬로건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이것은 보통 여성들의 일상생활의 정치화를 의미하며, 그동안 공고하게 유지되어 온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분리에 대한 도전을 의미한다(Lee 2007; Saldivar-Hull 1991). 샬럿 번치(Bunch 1987)는 생활정치를 여성들의 역사적 경험에서 나오는 따뜻함과 올바름에 근거한 사회에 대한 지향성, 도덕성, 가치, 믿음을 근거로 형성된 것이라 말한 바 있다. 결혼, 부역, 칩실, 보육시설, 노동시장 등 일상생활에서 형성되는 권력관계에 대한 포착과 도전은 사생활의 정치화인 것이다. 생활정치는 기존의 남성 중심적인 제도정치의 위계적인 권력관계에 대한 도전이라는 점에서 진보적이

---

4) 이 연구들에는 전북여연, 경남여연, 경기여연, 등 지역의 여성단체들의 연합체 운동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두는 흐름과 여성민우회 지부의 활동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

며, 일상생활의 전 영역에 대한 정치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대중성을 담지하고 있다. 여성들은 가족, 일터, 병원, 학교를 비롯한 공간에서 자신들의 생활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협상과 투쟁을 통해 공적 영역인 국가와 기관들이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가족들을 중심으로 일상생활에서 형성된 연결망은 당연히 정치적 연결망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생활정치는 사적인 문제라고 여겨졌던 문제들을 국가 혹은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드러내며 쟁점화시키는 ‘사회적인 것(the social)’의 발견과 발전 과정인 것이다(Christiansen-Ruffman 1995; 김경희 2004, 165-167).

## 2. 진보적 여성운동으로서 한국여성민우회의 창립

민우회는 1987년에 창립되었는데, 비슷한 시기에 24개의 진보적 여성운동단체들의 연합체인 한국여성단체연합도 창립되었다. 이처럼 전국적인 여성운동단체가 결성된 배경에는 민주화운동의 계승과 독자적인 여성운동에 대한 모색이 자리잡고 있었다.

1970년대의 반독재 투쟁과 1980년 광주항쟁으로 이어지는 반정부 투쟁, 그리고 1987년 민주화 항쟁 과정에서 여성조직들은 사회민주화, 민족의 자주성, 그리고 민중의 권력획득이라는 삼민이념에 근거한 민중운동에 참여했다. 이 당시의 진보적 여성활동가들은 주로 학생운동 출신, 크리스찬 아카데미의 여성사회교육생, 그리고 70년대의 여성노동운동가들이다(이승희 1994b). 1983년 전두환 정권의 유화정책은 그동안 억압되었던 사회운동 세력들에게 확대된 정치적 공간을 제공했다. 이전보다 사회운동 세력에게 허용적인 정치 환경은 독자적인 여성운동 조직인 여성의 전화, 민청련 산하의 여성부, 그리고 여성평우회와 같은 조직들이 설립되는 배경이 되었



다. 이 조직들은 관의 지원을 받던 자유주의적 여성운동과 명확하게 선을 그으면서 진보적 여성운동을 주창했다. 1984년 이후 도시빈민과 노동자 여성들의 생존권 문제가 진보적 여성운동의 주요 과제로 부상했고, 이것은 여러 여성단체들 간의 연대활동을 구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진보적 여성단체들은 1985년 제1회 여성대회에서 ‘민족, 민주, 민중과 함께 하는 여성운동’을 내걸고, 여성생존권을 위한 운동을 전개했다(이승희 1994a; 1994b). 그러나 여성운동조직들이 삼민이념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여성운동의 정체성을 둘러싼 극심한 논쟁이 벌어졌다. 당시에 변혁운동 내에서 여성문제를 다룬 민청련의 하부조직인 민청련 여성부는 여성운동을 변혁운동의 일환으로 상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조직의 일부 여성활동가들은 여성운동의 독자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조직을 탈퇴하고 여성평우회에 참가했다. 그러나 여성평우회 내부에서도 삼민운동을 내건 과도한 정치투쟁은 여성운동의 대중성을 훼손한다는 창립 멤버들의 입장과 민주화운동 속에서 여성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여성운동의 정체성을 다져야 한다는 후배 그룹의 입장이 경합하면서 논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여성운동은 군부독재 타도를 위한 운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선에서 합의를 이루었다. 논쟁 중이던 1986년에 터진 박종철 고문사 사건과 부천서 성고문 사건은 사회운동세력들을 결집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여성운동이 민주화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당위성의 근거를 제공했다(이미경 1998).

그러나 이후에 여성평우회의 후배 그룹 내에서 제한의회 소집을 주장하는 입장이 강력하게 대두되면서 치열한 논쟁이 있었으나 해결되지 못하고, 선배그룹이 탈퇴하면서 결국은 여성평우회는 해체되었다. 여성평우회에서 대중적인 여성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한 활동가들이 민우회를 창립했고, 여성들의 연대를 통해 전국적인 차원에서 보다 선명한 정치투쟁을 수행할 수 있는 여성운동 연합체인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창립되었다.<sup>5)</sup> 굳이 두 단체의 특징을 구분하자면 민우회는 여성대중들의 지지와

요구에 기반한 대중운동을 목적으로 했으며, 한국여성단체연합은 회원조직들을 기반으로 하여 전국적인 정치투쟁과 여성운동을 주도한다는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 특히 개헌국면에서 대중들의 정치의식이 고양되고, 생산직여성뿐만 아니라 사무직 여성, 주부, 성폭력, 종교, 환경, 탁아 등이 전 시기에 드러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들이 부각되면서, 여성들의 이해와 요구를 주창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고, 민우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러한 역할을 책임있게 받아들였다.

1987년 민우회의 창립 선언문에서는 민우회의 운동목표를 크게 민중운동을 계승한 민주사회의 수립과 남녀가 평등한 사회의 실현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창립선언문 중 ‘우리의 지침’에 잘 나타나 있다.

- 우리는 자주적 민주사회의 건설을 위해 일한다.
- 우리는 민중생존권이 보장되는 민족자립경제 수립을 위해 일한다.
- 우리는 진정한 남녀평등 사회의 실현에 앞장선다.
- 우리는 평등한 여성노동권 확보를 위해 앞장선다.
- 우리는 모성보호 및 여성의 사회참여를 보장하는 제반 제도적 확립을 위해 일한다.
- 우리는 성폭력의 근절과 성차별적 문화의 개혁에 앞장선다.

(한국여성민우회 창립선언문에서 발췌, 1987)

1987년 창립에서 1980년대 말까지는 민우회도 한국사회의 주요 과제였던 민주화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여성이슈를 결합하는 운동의 방식을 취했다.<sup>6)</sup> 민우회는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민주화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했으며, 호헌철폐와 대통령직선제를 요구하는 시위에

5) 민우회 창립에 참여한 활동가와의 면접내용에 근거하여 평우회 활동 내용을 정리하였다.

6) 한국여성민우회, 『함께가는 여성』(1987-1989).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 시기에 대부분의 진보적 여성운동 단체들의 주요한 목적 중의 하나는 많은 여성들의 민주화운동에의 참여였다. 당시에 여성운동단체들은 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하여 호헌철폐와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시위에 참가하였다(이미경 1998). 야당의 분열로 대통령선거는 패배했지만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성과로 얻어진 대통령직선제와 1988년 총선 결과로 형성된 여소야대 국회는 여성문제를 정부와 국회에서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더욱이 1980년대 말의 동구권의 몰락은 민중여성운동의 근거였던 마르크스주의와 민중이념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면서 여성의제에 중점을 둔 독자적인 여성운동이 성장하게 되었다.

### 3. 민우회 운동의 정체성으로서 대중여성운동의 모색

‘여성운동의 대중화’는 민우회가 창립될 때부터 줄곧 견지해 온 조직의 목표이자 임무였다. 이것은 민우회의 모든 사업과 조직운영의 규범이자 문화가 되었으며, 20여 년의 역사 속에서 민우회 운동의 주요한 정체성으로 자리잡았다.

한국사회에서 대중정치에 대한 관심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 정치민주화의 기틀을 마련했으나, 민주주의의 제2단계인 사회민주화를 위해서는 대중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급증하였다. 정철희는 정치민주화까지는 정치엘리트와 사회운동부문의 엘리트에 의해 추진될 수 있었지만 한국사회는 민주주의 원리의 적용이 공적인 영역에 국한되어 있고 사적인 영역에서는 경제적 권리와 시민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중적 정치참여가 긴급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정철희 1999, 491). 민우회의 대중정치에 대한 고민은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민우회는 창립 선언문에서 “80년대에 여성운동이 여성문제와 사회문제를

통일적으로 인식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정치투쟁이 강조"되었지만, "여성 대중들의 광범위한 참여기반 위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스스로 비판하고 있다(한국여성민우회 창립선언문 1987).

민우회는 여성대중의 고통과 문제는 "몇몇 앞장선 여성," 즉 엘리트 여성들의 높은 목청으로 대변될 수 있는 간단한 것이 아니라고 진단했다(한국여성민우회 창립선언문 1987). 즉 여성대중은 "일상적 삶을 매일 매일 살아 가고 있는 사람들이며, 물이 스미듯 천천히 소리없이 흘러가 마침내는 도도한 격류가 되어 온갖 것을 휩쓸어 버리는 대하"로 인식되었다(한국여성민우회 창립선언문 1987). 따라서 창립 당시에 민우회 운동의 대상은 도시와 농촌의 근로여성대중, 주부, 청년여성 등으로 포괄되었다. 그러나 운동조직 대상의 광범위성이 반드시 대중적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1989년에 이르러 민우회는 조직 대상을 사무직여성과 주부로 집중하며 생산직 여성노동자를 조직화의 주요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 이유는 여성운동이 대중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대상을 한 운동단체가 포괄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사무직과 생산직 여성, 그리고 여대생과 일하는 여성, 주부 등 다양한 정체성과 계층적 이해와 관심 간의 긴장과 갈등을 창립 초기의 활동에서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민우회운동의 중심인 생활자치센터와 사무직여성 노동센터의 골격이 갖추어졌다.

사무직여성을 위한 활동은 창립 초기에 노조탄압저지, 결혼퇴직제 반대, 여성생존권투쟁에 대한 지원활동과 교육, 선전사업이 주를 이루었다. 그리고 확대된 정치 공간 속에서 정부를 대상으로 여성권리 확보를 위한 운동도 전개하기 시작했다. 특히 사무직 여성을 비롯한 일하는 여성의 권리를 주요 과제로 삼아 남녀고용평등법과 같이 형식적이고 사문화되었던 여성노동 관련 법제들을 개정하는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민우회는 1988년에서 1989년에 이르는 시기 동안 여성문제와 교육문제에 관심이 있는 진취적인 주부 중심의 소모임 활동을 구성하여 주부운동

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sup>7)</sup> 소모임을 민우회의 조직활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민우여성학교를 개설하여 민우회 창립의 주요 활동가들이 교육을 담당하면서 주부활동가들을 배출시켰다. 현재 10개의 민우회 지부 설립은 이 시기에 주부활동가로 성장한 회원들의 역할에 힘입은 바가 크다. 지역에서는 집중지역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환경문제와 식품오염문제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다. 이 과정에서 1989년 9월 12일에 ‘함께 가는 생활협동조합’이 결성되었고, 1991년에는 한국여성민우회 ‘생활협동사업부’로 개편되었다. 여성대중운동의 원동력이 된 주부 회원들이 주축이 된 생활협동조합의 창립 배경과 목적은 다음의 창립선언문에서 잘 알 수 있다.

… 한국여성민우회에서는 주부들이 이를 개인의 힘으로 가정 안에서 해결하고자 하거나,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해결해나가기 위해 민우회 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기로 하였습니다…… 단순한 먹거리를 나누는 활동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과 우리 사회의 변화를 추구하는 운동이며 나아가 물질위주의 현대문명의 흐름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인 것입니다. 이 운동의 필요성은 누구보다도 우리 주부가 가장 심각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부들이 앞장서야 합니다.

(한국여성민우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창립선언문 중에서 발췌)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 활동은 ‘작게 작게 천천히’ ‘부엌에서 세상을 보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일상생활의 경험을 사회적인 것으로 만들어가는 운동을 전개했다. 소비생활, 환경보호, 국내농업보호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해 사회적인 의미와 해석을 부여하면서 주부운동을 성장시켰고, 이를 통해 여성운동의 확장에도 기여했다.

7) 한국여성민우회, 『함께가는 여성』(1988; 1989).

1992년에 동북여성민우회의 결성을 시작으로 해서 여성운동의 대중화를 위한 조직적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은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절정에 이르렀다. 1994년에 서울남서여성민우회, 1997년에 고양여성민우회와 진주여성민우회가 창립되었고, 이후 김포, 군포, 원주, 춘천, 광주에서 민우회 지부가 결성되어 2001년에 인천여성민우회가 창립되는 것을 끝으로 현재 10개의 지부가 있다. 이 시기의 민우회의 운동 목표와 의미는 ‘생활 속의 여성운동, 참여하는 여성운동, 함께 가는 여성운동’이라는 슬로건 안에 집약되었다. 1990년대 초반까지는 대중여성운동에 대한 필요성과 이를 실현하려는 노력이 주를 이루었다면, 점차 대중여성운동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현장인 지역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민우회의 지역대중운동에서 견지된 관점은 여성대중들은 단일한 범주가 아니라 다양한 이해에 기초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민우회는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창립 당시에 비해 여성대중운동의 성격을 더욱 강화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이 점은 창립 당시의 조직목표가 수정된 민우회 회원의 다짐 속에서 잘 나타난다.

〈한국여성민우회 회원의 다짐〉

하나, 성평등과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듭니다.

하나, 자연과 인간이 조화로운 세상을 만듭니다.

하나, 생활 속의 여성운동을 만듭니다.

민우회는 지역대중운동의 활성화는 거주 지역에서 생활하는 일반주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관건이라는 인식에서 생협운동과 환경운동을 중심으로 한 생활자치센터의 활동을 여성운동의 영역으로 확장시켰다. 특히 민우회는 활동가 중심의 여성운동을 대중운동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한층 기울였다. 이럴 때 수많은 여성운동단체들과 차별성을 갖는 민우회운동의 독자성이 세워질 수 있다고 보았다. 1990년대에 들어서서 수천 명의 회원을

확보하게 된 생협운동은 환경과 소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주부들의 다양한 관심을 담아낼 필요를 제기하였고, 이를 위한 방법으로 1994년 가족과 성상담소를 개설했다. 이 상담소는 민우회가 여성들의 삶의 현장과 밀착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사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여성들의 문제를 정치화하려는 것이었다.<sup>8)</sup>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사회의 시민단체들은 사단법인화를 추진했다. 민우회는 1994년에 정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했다. 이것은 민우회의 대중여성운동 지향 속에서 이뤄진 일이다. 내부에서 사단법인 등록을 둘러싼 논쟁을 통해 여성운동의 대중적 신뢰와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대중여성운동의 관건이라는 이유가 설득력을 얻었다. 마찬가지로 이 시기에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하여 회원단체들은 대내외적인 합법성을 인정받기 위해 정부에 공식적으로 등록했다. 1993년 문민정부가 성립되고 나서, 국가나 그동안 제도권 밖에서 활동해 온 사회운동 세력 모두에게 정당성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이것은 군부 독재 시기에 정부와 시민사회의 우호적이지 않은 관계에 변화를 시사하는 기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4. 생활정치를 통한 진보성의 재해석과 대중성의 실천

이 장에서는 민우회 운동의 주요한 정체성인 진보성과 대중성이 생활정치를 통해 어떻게 실천되었는지를 지역여성운동의 생활정치, 공사 경계에 도전하는 생활문화 운동, 여성노동 의제의 개척과 공론화라는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조명할 것이다. 민우회에서 다루는 의제들은 노동, 성폭

---

8) 한국여성민우회, 『함께가는 여성』(1994).

력, 가정폭력, 가족문제, 미디어, 건강, 환경, 예산, 정책 등 우리의 생활영역 전반에서 여성과 관련된 사안들을 모두 다루고 있어서 ‘백화점식 운동’ 혹은 ‘여성운동의 전시장’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민우회 운동의 정체성인 여성운동의 진보성과 대중성은 이처럼 여성과 가족의 삶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의제들을 선택하고, 그것이 가진 한국사회의 가부장적 요소들과 젠더 불평등의 지형을 파악해내고, 그것의 변화를 모색했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것이었다.

### 1) 지역여성운동의 생활정치

1990년대 중반부터 실시된 민선 자치는 중앙정치에만 적용되던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를 지방정치에도 확대하여 적용한 것이다. 즉 주민들의 일상사를 주민들의 정치참여와 집합적 결정을 통해 민주주의적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핵심내용이라 할 수 있다. 지역 여성들의 일상생활의 경험과 문제의식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대변하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여성들의 일상생활의 정치화와 지역사회활동 참여는 지방자치의 실현에 관건이 된다고 이해되었다. 따라서 지역여성 대중들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지역운동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지역 여성운동단체들은 그동안 제도정치에서 배제되어 왔던 여성들의 의사수렴의 통로 역할을 할 수 있었다.

민우회 지부의 여성들은 의회에 직접 진출하고, 젠더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 정책을 분석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활동을 통해 생활정치를 실천해왔다. 민우회 지역여성운동은 여성운동이 소수 엘리트 여성들만의 점유물이 아니라는 인식을 확고히 하면서 지역의 여성문제와 현안들을 자신의 문제로 삼고 참여하는 풀뿌리 여성운동의 저변을 확대했다고 평가된다(박기남·김연순 2008).

민우회의 대표적인 지역여성운동의 생활정치로는 정치세력화 활동, 생



협활동, 그리고 지방정부 성인지 예산 활동을 꼽을 수 있다.<sup>9)</sup> 여성의 정치 세력화 활동은 당시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되면서 치러진 지방의회 선거가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사실 여성운동이 정치세력화에 대한 관심은 컸으나, 대중적인 기반이 취약하여 중요한 선거마다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 이유는 비단 민우회의 역량 부족보다는, 전반적으로 한국의 정치과정의 남성지배적이고, 특정 정당이나 집단이 통제하여 여성들의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불평등한 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지역에서는 선거를 통하여 여성의제를 협상할 수 있는 정당정치의 풍토나 대중적인 기반이 형성되지 않았다. 이런 한계를 인식하면서 민우회는 다른 여성단체들과 함께 생활정치를 슬로건으로 하여 여성들의 정치적 역량 강화(empowerment)를 위한 활동을 추진하였다. 불평등한 정치과정 때문에 여성들의 정치참여가 봉쇄되다시피 한 상황에서 그나마 여성들이 제도정치로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길은 지방의회에 참여하는 것이었다.

민우회는 여성들의 지방의회 참여를 통해 환경, 교통, 주거, 의료시설, 교육, 여가시설과 같은 여성들의 사적인 영역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정치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1994년에 전국적인 연합 여성운동은 지방자치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중점사업으로 정하고 공식적으로 지방자치에 20퍼센트의 여성 참여를 위한 특별본부를 발족시켰다. 민우회는 1990년 중반에 지역후보를 발굴하고 당선시키기 위한 활동에 주력하였다. 민우회가 벌여 온 지속적인 지역대중여성운동의 성과로 1995년 지방자치 선거에서 6명의 의원이 배출되었다. 당시 이 운동에 참여했던 회원들은 거의 모든 민우회의 조직들이 결합하여 후보들을 발굴하고 당선시킨 경험을 “매우 순수하고 열정적인 활동”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인 평가 못지 않게 1995년과 1998년의 지방선거의 경험은 민우회로 하여금 정치운동에

---

9) 그 외에도 민우회의 지역여성들이 수행한 러브호텔반대운동과 환경운동도 생활정치의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서 한 발 물러서게 만들었다. 그 이유는 정치운동은 후보의 발굴과 당선뿐 아니라 이후에도 후보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해야 하지만, 용이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의회에 진출한 여성들은 지역여성들의 요구를 의회에서 대변하고, 여성운동과 소통하면서 지역여성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는 데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

민우회 생협운동은 지역에 기반을 둔 주부대중조직이 주축이 된 주부들의 생활운동을 여성운동의 일환으로 이해하면서, 대량생산·대량소비·대량폐기의 사회에 맞선 대안경제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실험적 시도로 평가된다. 생협의 창립 멤버인 박영숙은 생협운동은 “단순히 먹거리를 나누는 활동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과 우리 사회의 변화를 추구하는 운동이며 나아가 물질위주의 현대문명의 흐름을 바로 잡겠다는 주부들의 의지가 모아진 것”이라고 정의한다(박영숙 2008, 259). 또한 그는 “민우회 생협운동은 여성운동을 생활의 영역까지 확장시켰다는 면에서 여성운동 내부에서 민우회만이 갖는 특성으로 평가되고, 생협운동계에서는 아무나 쉽게 손을 대지 못하는 농산물 유통 사업체를 여성들의 힘으로 섬세한 경영과 협동의 원칙을 지키면서 운영해 왔다”고 확신한다(박영숙 2008, 261).

민우회의 지역운동의 생활정치 실현의 대표적인 또 다른 활동은 2001년에서 2003년까지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과 예산의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기’라는 주제로 벌여온 예산분석 운동이다. 2001년에 예산분석 운동을 시작하면서 내건 슬로건은 ‘예산에도 성(gender)이 있다’였다. 이 슬로건은 일견 중립적으로 보이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여성들의 전통적인 성역할을 고착시키거나 미온적인 복지수혜의 대상으로 여성을 간주하는 지방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한 도전이었다.<sup>10)</sup> 지역의 예산분석 운동은 주로 주부들로 이

---

10) 성인지적 예산분석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 권고하고 있는 여성정책의 하나로, 정부의 예산 지출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루어진 여성단체의 회원들에 의해 수행되었다.

민우회 운동에서 나타난 생활정치에 대한 인식은 성인지 예산운동을 전개했던 민우회 회원들의 다음과 같은 진술 속에서 잘 알 수 있다.

지역은 우리의 생활 중심지이며, 참여와 자치를 실현하는 뿌리입니다. 우리의 활동은 바로 지역의 생활자로서 우리의 일상의 경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지역의 다양한 이슈들을 '정치화'해낼 것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정치는 우리 삶의 조건을 스스로 바꿔가는 생활의 정치입니다.<sup>11)</sup>

솔직히 민우회 본부는 성인지적 예산분석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운동이 담보해야 하는 전문성 때문에 지역조직들의 역량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생강모임'이라는 조직의 역할 덕분이었다. 이 운동에 참여한 6개의 지역에서는 이른바 '생강모임'을 결성하였는데, 생강은 생활정치를 건강하게 하는 여성들의 모임의 약자이기도 하면서 모든 음식에 들어가서 맛을 내는 감초와 같은 역할을 하는 생강을 연상하는 의미를 갖는다. 사실 성인지 예산분석 운동은 상당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정책이었으나, 지역 여성운동단체에서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 이유는 민우회의 예산분석 운동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정책이 지역여성들의 주요한 자원이라는 점을 드러냈으며, 그것이 여성들의 임파워먼트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김경희 2003; 2004).<sup>12)</sup>

민우회의 지역대중여성운동이 벌인 생활정치의 의미는 여성의 영역이

---

11) 한국여성민우회(2001). '생활정치를 건강하게 하는 여성들의 모임' 결성식의 다짐의 글.

12) 민우회의 성인지 예산운동의 내용은 김경희(2003)와 김경희(2004)의 연구내용을 재구성하여 정리하였다.

라고 인식되어 왔던 사적 영역의 문제들을 개별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지방정부)라는 틀 속에서 제기하고 재구성함으로써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 대한 담론의 지형을 변화시키고, 사회성원으로서 여성의 역할과 참여의 의미를 높였다는 데 있다.

## 2) 공사 경계에 도전하는 생활문화운동

민우회가 가장 주력한 운동 의제 중의 하나는 개인의 일상생활의 주요 근거지이자 가장 기본적인 사회제도인 가족이다. 민우회는 한국 가족의 가부장적 이념, 관습, 문화, 그리고 여기서 파생되는 성차별의 철폐를 운동의 목적으로 삼아왔다. 1990년대 이후 한국여성단체연합을 중심으로 전국적 차원에서 여성빈곤, 영유아 복지, 보육정책 등 가족정책의 제, 개정 운동이 개진되어 왔던 것에 비교하면, 민우회는 이러한 운동의 연대활동에는 참여 하면서도 가족정책보다는 가부장적이고 비민주적인 가족생활 그 자체의 변화에 주력해왔다.

1990년대의 생활문화 운동은 가족 내의 여성의 지위인 주부 역할의 재평가와 재구성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적으로 사회주부대회, 가족법 개정운동, 나여기 캠페인, 웃어라 명절 캠페인을 들 수 있다.

주부들의 역할과 관련된 민우회 운동의 대표적인 활동은 1996년에 시작된 사회주부운동이다. 이 운동은 가정 내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다수 여성들의 기여와 잠재력을 재평가함으로써 가정의 재생산자로서만 주부를 한정하는 지배적인 담론에 도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운동은 1997년 제1차 사회주부대회를 개최한 뒤에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사회주부 캠페인이 여성의 사회민주화와 정치참여의 촉진을 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지향점이 주부의 사회적 위상에 대한 재평가인지, 아니면 주부의 역할을 사회적으로 확대하자는 것인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부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와 역할을 의미하는 사회주부라는 용어는

여전히 사회적인 파급력을 간직하고 있다(이재인 2008).

1999년의 ‘나의 여성차별 드러내기 운동’은 세대, 계층, 지역을 망라하여 민우회가 전개한 대사회적인 캠페인으로서 공사영역에 팽배해 있는 가부장적 규범과 문화의 실상을 생생하게 드러냈으며, 여기에서 경험하는 여성들의 차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일상생활의 변화를 모색했다. 여성차별 수첩을 만들어서 남녀노소에게 배부하고, 자신이 일상생활에서 겪은 차별의 경험을 적도록 하여, 활동가와 연구자들이 함께 분석하여 사회적으로 공론화하였다. 이런 방식은 매우 대중적이어서 일반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나머지 캠페인에서 일반 시민들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 것이 명절과 제사의 성차별이었다. 이처럼 유교적 가족의례에서 나타나는 여성들의 소외와 불평등하고 과중한 가사노동의 문제에 천착하여 1999년 9월 추석 기간에 ‘웃어라 명절’ 캠페인을 전개했다.<sup>13)</sup> 웃어라 명절 캠페인은 미디어의 호응과 함께 여성부의 사회문화 개선 운동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졌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가족 생활문화 운동에 대한 성찰적인 평가가 이뤄졌다. 이제까지의 생활문화운동이 성역할의 경계에 도전하기보다는 그 역할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면서 유지하는 가운데 여성에 대한 차별과 권리의 부재를 문제 삼은 것은 아닌가라는 반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2000년대에는 기존의 운동을 보완하면서도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한국의 가족주의와 가족제도 자체에 대한 도전과 대안적인 실천에 주력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1990년대 말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한국사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가족의 변화를 체감하게 되었다. 이혼률의 증가와 출산기피, 아버지의 권위실추, 기러기 아빠, 아동학대, 아내학대 등이 사회문제로 진

---

13)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민우회는 더욱더 사회적인 파급력이 큰 프로젝트들을 수행하였다. 여기에는 ‘웃어라 명절’ 캠페인 이후에 회식문화 바꾸기, 가족 내에서 가부장적인 호칭 바꾸기 등을 들 수 있다.

단되었고, 이런 징후들을 가족의 위기로 규정하면서 그 대안으로 ‘가장 기 살리기’ 캠페인이나 가족유대 강화의 메시지가 유포되었다. 이런 환경에서 1997년 열린 가족 캠페인에서부터 2004년 한부모네트워크 운동으로 이어 지는 가족운동은 기존의 가족주의와 가부장적 가족 관계에 균열을 내는 실 천이었다. 1995년에 만들어진 가족과 성상담소에 접수된 가족생활의 어려 움 중에서 이혼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았고, 편부모에 대한 편견이 심각하 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 활동은 ‘정상’ 가족 담론의 해체와 더불어 한 부모들의 생활자립 지원 정책과 심리적 정서적 지원을 위한 교육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점을 일깨웠다. 민우회 한부모가족 운동은 기존의 수혜적인 대 상에 머물러 있던 여성 한부모들을 삶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상담, 교육 등 다층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함으로써 스스로의 역량을 키워내는 여성주의적인 접근을 취했다고 평가된다(유경희 2008). 1999년까지만 해도 민우회는 편부모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이후에는 한부모라는 새로운 용 어를 도입하였고,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채택되었다. 10년에 걸친 운동을 통해 편부모라는 낙인의 대상이던 가족형태가 다양한 가족형태 중의 하나 로 자리매김하였으며, 미디어에서 한부모 가족을 소재로 한 드라마, 다큐 멘터리 등이 제작되어 사회적 파급력을 높였다.

민우회의 생활문화 운동은 1990년대 중반까지의 한 시기와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에 이르는 다른 시기 간의 운동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보여준다. 첫 번째 시기에는 한국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가시적이고 직접적 인 차별이 명확했던 특징이 있어서, 생물학적 차이를 근거로 행해지는 성 차별에 대한 문제제기와 그동안 획득하지 못한 여성의 권리를 주창했던 반 면, 두 번째 시기에는 여성의 문제가 성별 차이의 문제뿐만 아니라 계급, 지역, 연령에 의한 여성들 내의 무수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복잡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이동했음을 보여준다(이재인 2008).

### 3) 여성노동 의제의 공론화

창립 때부터 여성노동문제는 민우회의 주요 과제들 중의 하나였다. 노동개념이 노동시장에서 경제적인 보상을 받는 일, 즉 산업화된 노동으로 규정되어 온 것은 남성들의 노동시장 경험을 표준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이런 개념 속에 여성들이 주로 가족 내에서 수행하는 가사노동, 양육, 간병과 같은 일은 노동개념에 포함되기 어렵게 된다.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급증하면서 여성들에게 부과된 가족 내의 노동과 시장노동의 이중부담은 시장노동과 가족의 갈등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성희롱, 용모차별, 임신, 출산, 양육을 이유로 한 차별은 성역할 규범이 노동시장 내에서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민우회는 남성 중심적인 노동시장 구조와 노동운동에서 제기되지 않거나 부차적으로 취급되었던 여성노동이라는 독자적인 영역을 개척하여 운동의 의제로 삼아왔다. 여성노동의 경험은 노동시장과 가족을 분리하여 설명할 수 없다는 점에서 민우회가 전개한 여성노동운동은 생활정치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민우회는 고용평등, 고용안정, 모성보호, 일-가족 양립 지원, 여성노동기본권 확보, 가사노동가치 인정이라는 의제를 공론화하고 더 나가서는 법제화에도 기여했다. 이 과정에서 여성노동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논쟁을 촉발하고 주도하면서 페미니즘에서 쟁점이 되어 온 차이, 차별, 평등개념이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소비되는지를 알게 해 준다.

여성노동문제는 1980년대 말에 만들어진 노동센터를 중심으로 다뤄졌다. 노동센터는 고용평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면서, 여성노동문제에 대한 선구적인 문제를 사회적으로 제기하고 연구활동을 통해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고용평등은 ‘여성의 평생평등 노동권과 모성보호’라는 슬로건 안에 그 핵심이 집약되어 있다. 민우회는 모성보호를 노동문제 의 일환으로 정의하면서 여성들이 평생 평등한 노동권을 확보할 수 있는 주된 방법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모성보호에 대한 사회적인 재평가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 탁아법의 제정, 생리휴가

폐지에 대한 방어, 그리고 근로자 파견법 제정에 대한 저항 등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대응을 활발히 수행했다. 민우회에서는 특별히 사무직 여성들의 주요한 노동문제인 신인사제도, 비정규직의 확산과 같은 차별적인 인사제도와 고용관계를 사회적인 쟁점으로 부각시켰다. 또한 직장내 성희롱 및 모집 채용 시 용모제한의 문제를 대중적인 이슈로 부각시켰다(남녀고용평등을 위한 교수모임 1994;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공동대책위원회 1994). 1995년에 민우회의 여성노동센터 내에 설립된 고용평등추진본부는 고용차별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안제시의 역할을 수행했다.

민우회가 가사노동과 관련된 활동을 시작한 것은 1990년 가사노동가치평가와 세법개정 운동에 참여하면서부터이다. 이 운동은 50년 이상을 끌어 왔던 가족법 개정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는데, 한국여성단체연합이 1989년 가족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시작되었고, 여기에서 민우회는 주도적인 활동을 하였다.<sup>14)</sup> 민우회는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권을 신설하도록 제안하였으며, 가족법의 실질적 시행을 위해 세법 개정, 재산분할 청구권의 확보 운동과 더불어 가사노동가치 인정 운동을 수행하였다. 당시에 전문가 대체 비용법을 적용하여 가사노동의 가치가 88만 원 정도라는 것을 사회에 공표하여 커다란 반응을 얻었다. 1991년에 재판부에 재산분할 청구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판결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하여 초기 판결부터 가사노동가치와 재산형성에서 주부의 기여도를 인정하는 판례를 도출하는 성과를 냈다. 민우회는 세법개정운동을 벌여 세법에서도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가사노동가치를 반영할 것을 강력히 주장함으로써,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제 한도가 대폭 인상되는 성과를 가져왔다. 1995년에

14) 2005년 호주제가 폐지될 때까지 민우회는 가족법 개정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1989년 민우회는 주부분과 안에 가족법개정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고, 1990년대 말 호주제폐지를 위한 거리 서명운동을 비롯한 호주제폐지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진행하였다. 민우회는 호주제폐지운동 초기에 가장 적극적인 대표 단체였고, 그 후 호주제폐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이 결성되어 연대운동으로 전환되면서, 민우회는 공조운동으로 전환하였다(이재인 2008).



주부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손해보험에서 보상할 때 가사노동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였다. 터무니없이 주부 노동의 가치를 절하했기 때문에 민우회는 이전의 활동 경험을 토대로 고발센터 등을 설치하고 토론회를 개최하여, 이 문제를 공론화시켰다(김경희 2008, 383-384). 가사노동가치 운동은 이후에는 구체적인 활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정부나 국책연구기관 등에서 가사노동을 국가경제의 위성 계정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이 운동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세제나 보험금 지급, 재산분할 등 매우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에 초점을 둔 점이다. 이는 가사노동의 금전적 가치와 관련된 사회적 현안이 발생하면, 이에 대처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사노동과 관련된 사회적인 현안이 터졌을 때 대응하는 과정에서 논쟁이 유발되기는 했지만 그것이 더 심화되지 못하고 끝나버린 아쉬움을 보인다.

민우회의 생리휴가 존폐와 모성보호 입법과 관련된 활동은 남녀의 신체적 차이와 차이를 인정한 평등개념을 둘러싼 논쟁을 촉발시켰다. 특히 생리휴가 문제는 페미니즘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남녀의 차이와 같음을 둘러싼 논쟁의 한국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생리휴가는 아시아의 일부 국가에만 존재하며, 한국의 기업들이 여성고용을 기피의 구실로 생리휴가를 거론할 때마다 대두되는 특징을 보인다.<sup>15)</sup> 민우회가 생리휴가를 둘러싼 활동과 논쟁을 벌이게 된 것은 1990년대 초 임신 기간에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소송을 지원하게 되면서이다. 그리고 1990년대 중반과 2001년을 전후 한 노동법개정과 모성보호 입법 과정에서 이 문제는 뜨거운 쟁점이 되었다. 1990년대에는 기업이나 정부가 생리휴가 폐지를 주장하면, 여성운동에서는 존치의 입장으로 대응해왔다. 그 입장의 근거는 생리는 여성의 고유한 특징일 뿐 아니라, 특히 제조업의 많은 여성

15) 최근에는 중고등학교와 대학에서 실시하는 생리공결제 문제도 비슷한 맥락을 제공한다. 이것은 남학생들에 대한 역차별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쟁되고 있다.

노동자들이 저임금을 받는 상황에서 유급의 생리휴가는 미력하나마 임금보전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열악한 노동시장 상황 때문이었다. 민우회 내에서도 생리휴가에 대해 단일한 입장을 정리한 것은 아니었으며, 그 때문에 기업의 폐지 시도가 있을 때 방어하는 전략을 취했다. 민우회 내부에서는 남녀의 신체적 차이를 고려한 생리휴가는 존재해야 하며 여성에게만 부여되더라도 사회성원들이 이를 승인해야 한다는 입장과 여성에 대한 비용지불과 성차별의 문제를 넘기 위해서는 남녀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건강휴가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공존하고 있었다. 민우회뿐 아니라 1990년대 중반 이후 여성운동 전반에서 생리휴가의 존치 여부를 둘러싸고 유사한 입장들이 생겨나고 있었다.

2001년 여성노동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근로기준법 제5장을 일반여성을 미성년자와 동일한 수준에서 보호하면서 남성에 비해 노동능력이 취약한 자로 상정하던 기존의 규정들을 임신부 여성에 대한 보호는 강화하되, 일반 여성에 대해서는 남성과 동일한 수준에서의 근로조건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일부 규정들이 개정되었고, 생리휴가에 대한 개정은 없었다. 이후 주5일제 근무가 실시되면서 무급 생리휴가로 변화되었고, 실제 여성노동자들이 생리휴가의 활용도는 매우 떨어졌고, 심지어는 폐지되었다고 인식하는 경향까지 생겨났다.

민우회의 여성노동문제의 공론화를 위한 활동은 1990년대 이후 평등과 차별을 둘러싸고 여성주의 진영 내부나 사회적으로 논쟁의 역사가 깊지 않은 현실에서, 여성주의적 논쟁을 촉발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했다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논쟁이 한국적 페미니즘을 구축하기에는 지속성을 견지하지는 못했다는 한계도 보여주고 있다.

## 5. 결론: 민우회 운동의 새로운 진보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

이 글에서는 1987년 창립에서 2000년대 후반까지 진보성과 대중성을 특징으로 하는 민우회 운동의 연속성을 생활정치의 실천 활동을 통해 조명했다. 물론 민우회 운동이 이 글에서 다룬 내용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민우회가 수행했던 성폭력반대, 여성건강, 미디어 운동 등에 대해 지면을 할애하지 못한 것은 이 글의 한계이기도 하다. 미처 다루지 못한 활동들에서도 진보성과 대중성이 견지되고 있으며 일상생활의 문제들을 정치화하려는 노력이 배어 있음은 물론이다. 또한 이 글은 민우회가 대중성과 진보성을 견지하기 위해 노력해 온 생활정치를 적극적으로 조명하기 위해, 성과를 낸 활동들에 논의의 비중이 두어져서, 운동과정에서 경험했던 갈등과 고민들이 생동감 있게 다루어지지 못한 한계도 있다. 운동 과정에서 민우회 활동가와 회원들이 끊임없이 직면했던 과제들은 진보성과 대중성의 새로운 의미구성의 문제라 할 것이다.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민우회를 비롯하여 진보적 여성운동 세력 내에서는 진보적 여성운동의 새로운 진보성에 대한 고민이 공론의 장에서 대두되었다(윤정숙 2004; 정희진 2006; 정현백 2006). 대표적으로 2006년 한국사회포럼은 여성운동뿐 아니라 한국의 사회운동 전반에 걸쳐 운동의 위기와 운동의 진보성을 화두로 하여 개최되었다. 1990년대 이후 지속적인 여성운동의 노력으로 성폭력 방지법, 호주제폐지와 성매매방지특별법 등 여성관련 법들이 제정되는 성과와 다양한 여성운동의 활동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상당히 해소되었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킴으로써, 의도하지 않게 과거에 비해 여성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축소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1997년 경제위기 이후의 급격한 사회변동은 여성운동의 진로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노동시장, 분배구조, 기업조직 등 모든 영역에서 질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 사회변동은 개인의 전망과 가족생활, 일상생활에도 변화를 동반하여 연대와

통합보다는 갈등과 차이가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여성운동도 더 이상 단일하고 동질적인 여성 집단을 대표하기는 어려워졌다. 민우회의 활동가들은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우리사회의 여성차별의 양상은 매우 직접적이고 가시적이어서 여성대중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2000년대에 들어 여성들 내부의 차이로 인해 단일한 여성운동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절감한다고 토로한다. 또한 이념적 선명성이 여성운동 내부에서도 뚜렷하지 않고 끊임없이 분화되면서 진보/보수라는 기준도 효력을 상실해가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진보'의 내용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김경희 2007).

이처럼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사회운동이 견지해야 할 새로운 진보성에 대한 고민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 민우회의 박봉정숙은 2006년 한국사회포럼에서 “더 구체적으로는 어떤 대상이나 어떤 이슈를 다룬다는 것이 진보성을 담보해주는 보증수표 혹은 상징이 될 수 없으며, 어떤 주제를 다루든 어떤 대상을 중심으로 운동하든 누구의 시선으로 접근하는가가 중요하고, 그것이 진보적인가에 대한 판단은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전략적으로 달리 구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박봉정숙 2006, 177). 즉 진보성은 운동의 정체성으로 끊임없이 추구되어야 하지만, 시대적 특성과 운동적 요구라는 맥락 안에서 구성되는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시대적인 새로운 진보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2008년 이후 신보수주의 정부가 집권하면서 복지, 노동, 세제 정책 등에서 신자유주의적 기조를 강화하였고, 여성정책이 후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민우회는 보수적인 정치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일상생활의 정치'를 수행하여 여전히 사회적인 공감을 얻는 성과를 어느 정도는 거두고 있다. 노인과 가족 관련 정책의 시행에 대한 모니터링, 몸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의식 확장 활동, 주례사 바꾸기, 나이차별 없애기, 별나라 캠페인 등을 통해 끊임없이 일상생활의 의제를 여성운동으로 만들어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2008년에 새 사무실을 마련하고 재정확보 방

안으로 공정무역 카페를 운영하면서 대중여성운동의 토대를 잃지 않으려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창립 이후부터 대중운동을 주창하면서 사안별 부속 조직 및 지역운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해온 덕분에 정치, 경제적 상황이 악조건일 때에도 조직을 보존하고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동서양의 여성운동 사례를 보더라도 지역운동 기반이 건재할 때에 운동의 생존력은 강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대중운동에 가장 중요한 회원확보는 쉽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다. 보수주의적 정치가 지속되는 한 여성의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은 이전만 못하고, 거버넌스의 후퇴로 진보적 여성운동의 존재감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은 경제위기와 정치적 보수성만으로 돌릴 수는 없으며, 여성운동의 충전과 힘갖추기가 요구되고 있다. 앞으로 평등실현이 가능한 선거, 여성정책의 후퇴 저지, 대중적 공감을 얻기 위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적극적인 활동에 대한 기대는 민우회를 비롯한 대부분의 여성운동 단체들이 직면한 과제이다. ~~444~~

## 참고문헌

- 강남식. 2004. “한국여성운동의 흐름과 쟁점.” 『기억과 전망』 제7호, 116-137.
- 김경희. 2003. “성인지적 예산도입을 위한 시론적 연구.” 『한국여성학』 제19권 1호, 한국여성학회, 1-37.
- \_\_\_\_\_. 2004. “일상의 정치(politics of everyday life)를 통한 여성의 임파워먼트.”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9권 1호, 한국심리학회, 163-179.
- \_\_\_\_\_. 2007. “법제화 운동을 중심으로 본 한국여성운동의 제도화와 위기론.” 『사회과학연구』 제15집 1호,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08-141.
- \_\_\_\_\_. 2008. “논쟁의 정치.” 『한국여성민우회 20년 운동사 여성운동 새로

- 쓰기』. 한울. 377-408.
- 김영희. 2002. “진보적 여성운동론의 재검토.” 『페미니즘연구』 제2호. (사)한국여성연구소. 11-42.
- 김현아. 2004. 『지역여성운동의 세력화와 제도화: 동북여성민우회 사례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미간행).
- 남녀고용평등을 위한 교수모임. 1994. 『직장내 성희롱, 어떻게 볼 것인가?—서울대 성희롱사건을 계기로—남녀고용평 등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 남윤인순. 2004. “여성의 정치참여운동의 현황과 과제.” 『기억과 전망』 제7호. 159-178.
- 문소정. 2009. “동아시아 페미니즘 시각에서 본 한국여성평화운동에 관한 연구: ‘평화여성회’의 인지적 실천과 딜레마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제84집. 한국사회사학회. 263-295.
- 박기남·김연순. 2008. “여성, 지역을 세상의 중심으로 바꾸다.” 『한국여성민우회 20년 운동사 여성운동 새로 쓰기』. 한울. 331-376.
- 박봉정숙. 2006. “뜨거운 감자: 차이와 연대, 여성운동-차이와 소통 그리고 새로운 미래: 나, 여성운동에 할 말 있다. 이제 민우회는 변하련다.” 한국사회포럼 2006. 한국사회포럼 2006 조직위원회. 173-179.
- 박영숙. 2008. “생활협동조합: 여성의 힘으로 만든 대안적 생산과 소비시스템.” 『한국여성민우회 20년 운동사 여성운동 새로 쓰기』. 한울. 259-301.
- 서울대 조교 성희롱사건 공동대책위원회. 1994. 『여성의 평생평등 노동권과 직장내 성희롱 예방과 대책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 서창훈. 2009. “서구의 생활정치 사상과 독일의 현실.” 『시민사회와 NGO』 제 7권 제2호. 111-149.
- 유경희. 2008. “새로 짓는 우리집: 민우회 한부모가족 운동.” 『한국여성민우회 20년 운동사 여성운동 새로 쓰기』. 한울. 226-258.
- 윤정숙. 2004. “진보적 여성운동의 전환을 위한 모색.” 『창작과 비평』 여름호. 55-69.

- 이승희. 1994a. 『여성운동과 정치이론』. 녹두.
- \_\_\_\_\_. 1994b. 『한국현대여성운동사』. 백산서당.
- 이재인. 2008. “가족, 차별과 경계를 넘어서.” 『한국여성민우회 20년 운동사 여성운동 새로 쓰기』. 한울. 193-225.
- 이혜숙. 2008. “지역여성운동의 조직과 성격: 경남여성단체연합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24권 4호. 한국여성학회. 175-218.
- 정철희. 1999. “한국 대중정치의 사회적 조건.” 『한국사회학』 제33집 가을호. 한국사회학회. 489-510.
- 정상호. 2009. “정치담론으로서 생활정치 연구의 현황 및 과제.” 『시민사회와 NGO』 제7권 제2호. 5-38.
- 정희진. 2006. “여성운동의 중심에 물음표를 매긴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정현백 대표와의 대화.” 『창작과 비평』 봄호. 231-257.
- 조주현. 2001. “여성 정체성의 정치학: 80-90년대 한국의 여성운동을 중심으로.” 『진보평론』 제7호. 126-148.
- 조희연. 2008. “추천의 글: 달려온 기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족적을 발견하고, 달려갈 길에서 희망을 발견한다.” 『한국여성민우회 20년 운동사 여성운동 새로 쓰기』. 한울. 9-16.
- 크리스찬 아카데미 여성사회 연구회. 『여성과 사회』 1978.11, 1978.12, 1979.1, 1979.2, 1979.3.4.5.
- 하승우. 2009. “한국의 시민운동과 생활정치의 발전과정.” 『시민사회와 NGO』 제7권 제2호. 39-72.
- 한국여성민우회. 『함께가는 여성』. 1987-1994.
- 한국여성민우회20년운동사연구위원회 엮음. 2008. 『한국여성민우회 20년 운동사 여성운동 새로 쓰기』. 한울.
- 호성희. 2007. “한국여성운동의 과거, 현재, 미래.” 『문화과학』 제49호. 102-120.
- 홍미희. 2006. “진보적 여성운동의 조직적 특성.” 『페미니즘연구』 제6권.

(사)한국여성연구소. 169-207.

- Bunch, Charlotte. 1987. *Passionate Politics: Feminist Theory in Action*. New York: St. Martin's Press.
- Christiansen-Ruffman. 1995. "Women's Conceptions of the Political: Three Canadian Women's Organizations." Myra M. Ferre & Patricia Y. Ferre, eds. *Feminist Organizations: Harvest of the New Women's Movement*.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 Gongaware, Timonhy B. 2011. "Keying the Past to the Present: Collective Memories and Continuity in Collective Identity Change." *Social Movement Studies* 10(1). 39-54.
- Jenkins, J. Craig. 1983. "Resource Mobilization Theory and the Study of Social Movements." *Annual Review of Sociology* 9. 527-53.
- Katzenstein, Mary Fainsod, & Carol McClurg Mueller. 1987. *The Women's Movements of the United States and Western Europe: Consciousness, Political Opportunity, and Public Policy*.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 Klandermans, Bert. 1984. "Mobilization and Participation: Social-Psychological expansions of Resource Mobilization Theor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9. 583-600.
- Lee, Theresa Man Ling. 2007. "Rethinking the Personal and the Political: Feminist Activism and Civic Engagement." *Hypatia* 22(4). 163-179.
- McAdam, Doug. 1982. *Political Process and the Development of Black Insurgency, 1930-1970*.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cCarthy, John, & Mayer Zald. 1977. "Resource Mobilization and Social Movement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2. 1212-1241.
- Melucci, Alberto. 1996. *Challenging Codes: Collective Action in the Information 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inkoff, Debra. 1993. "The Organization of Survival." *Social Forces* 71. 887-908.
- Polleta, Francesca, & James M. Jasper. 2001. "Collective Identity and Social Movement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7. 283-305.
- Saldivar-Hull, Jose. 1991. "Feminism on the Border: From Gender Politics to Geopolitics." Hector Calderon & Jose Saldivar, eds. *Border Feminism*.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Tarrow, Sidney. 1983. "Struggling to Reform: Social Movements and Policy Change during Cycles of Protest." *Western Societies Program Occasional Paper*, No.15. New York Center for International Studies. Cornell University.
- \_\_\_\_\_. 1994. *Power in Movement: Social Movements, Collective Action and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aylor, Verta. 1989. "Social Movement Continuity: The Women's Movement in Abeyanc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4. 761-775.
- Whittier, Nancy. 1997. "Political Generations, Micro-Cohorts, and the Transformation of Social Movemen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2. 760-778.

투고: 2011.4.4    심사: 2011.4.18    확정: 2011.11.3